

광주서석중·고, 대한검도회장기 단체전 우승



광주서석중학교와 광주서석고등학교가 지난 달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제8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나란히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서석중은 단체전 결승에서 부원중을 3-1로 제압하며 올해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했고, 서석고 역시 온양융화고를 4-1로 꺾고 작년에 이

어 2연패를 이뤘다. 송찬국 서석고 교장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훈련에 임한 지도자와 선수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동강대, 만학도·외국인 유학생 등 홍보대사 임명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난달 29일 본관 1층 장원홀에서 '2025학년도 동강대학교 홍보대사 임명식'을 개최했다. <사진> 선발된 남녀 홍보대사 10명은 간호학과 한동욱(2년), 김지후(여·1년), 군사학과 김가은(여)·안지완(이상 1년), 미디어콘텐츠과 임재만(2년), 사회복지과 서두리(여·2년), 유아교

육학과 문은빈(여·1년), 임상병리학과 박시현(여·1년), 글로벌비즈니스조제빵과 황티쓰영(여)·찬반마잉(이상 1년) 등 10명이다. 특히 올해는 60대 만학도와 외국인 유학생 등 홍보대사 선발 대상을 확대해 눈길을 끌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

조선대에 발전기금 전달



세계김치연구소 장해춘 소장이 지난달 27일 조선대학교(총장 김준성)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장해춘 소장은 조선대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학문의 동반 성장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장 소장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 광주-제주 공동학술회의



(사)광주시남북교류협회의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운영위원장 지병근 조선대 교수)은 최근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GIST 융합교육 및 융합교육센터와 공동으로 '2025 평화연대 광주-제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한반도와 오스트리아의 냉전 경

험을 비교 고찰하고 냉전의 유산 극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 위원장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자립준비청년 물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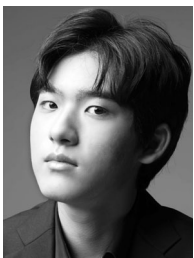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회장박재홍)는 지난달 28일 순천에 위치한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대상 500만원 상당의 흑서기 대비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순잡고 스타업'은 보호자가 없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 생활, 문화·정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동행성장프로젝트로, 하반기에도 학습지원·장학금지급·제빵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피아니스트 임운찬

소아 환자 위해 1억 기부



피아니스트 임운찬(사진)과 그의 소속사(목포모덕션)가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의료원이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임운찬의 의지에 따라 '전액 소아 환자 치료에 사용되길 바란다'는 요청과 함께 전달됐다. 의료원은 기부자의 뜻을 반영해 그가 최근 자선음악회에서 연주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작곡가 이름을 딴 'J.S.Bach(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기금을 신설하고 중증 소아 환자에게 활용하기로 했다. 임운찬은 18세이던 지난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후 2024년 발매한 '쇼팽: 에튀드' 앨범은 그라모폰 어워드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 '올해의 음반 피아노 부문', 디아파종 도로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 등을 휩쓸며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특집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선주씨(재)	4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재)	
[9]	30 KBS 뉴스특보	30 여왕의 집(재)	30 특집 930 MBC 뉴스	55 SBS 10 뉴스	
[10]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대운을 잡아라 스페셜	10 인간극장 스페셜 50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재)	0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0 틈만 나면(재)	
[11]			55 특집 12 MBC 뉴스		
[12]	00 특집 KBS 뉴스 12	1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25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4 스페셜	00 SBS 12뉴스 50 TV 동물농장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개그 콘서트 스페셜	55 특집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특보 20 팔도밥상(재)	40 수목드라마 24시 헬스클럽(재)		00 2025 국민의 선택 특집 뉴스브리핑	
[3]	00 특집 시사건건	55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재)			
[4]	50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1부>		50 선택 2025 1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00 SBS 뉴스 50 2025 국민의 선택 1부	
[5]					
[6]		35 2TV 생생정보	40 선택 2025 2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7]	00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부>	50 여왕의 집		00 2025 국민의 선택 특집 2부 SBS 8 뉴스	
[8]		30 셜리명사의 비밀 스페셜	50 선택 2025 3부 특집 MBC 뉴스데스크	20 KBC 8 뉴스 50 2025 국민의 선택 3부	
[9]	00 특집 KBS 뉴스 9	45 스모킹 건			
[10]	00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3부>	45 아이 러브 스포츠	10 선택 2025 4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11]		10 24시 헬스클럽(재)	30 선택 2025 5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00 2025 국민의 선택 4부	
[12]	00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4부>	25 스튜디오 K 스페셜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선택 2025 6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30 2025 국민의 선택 5부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한신 물
<코스타리카, 지구 최후의 낙원	13:00 EBS 평생학교
-진짜! 애코투어>	13:30 이것이 야생이다2
07:00 로보카 폴리	14:40 클래스 e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5:10 고향민국
07:30 슈퍼왕스 슈퍼콤보	15:40 마사와 곰
07:45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15:55 불룩스
08:00 댕동댕 댕동댕	16:10 댕동댕 댕동댕
08:50 하프와 친구들	17:00 페파 피그
09:20 자이언트 팽TV	17:10 슈퍼왕스 슈퍼콤보
09:4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	17: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0:30 한국기행(재)	17:50 자이언트 팽TV(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일 (음 5월 8일 癸卯) ☎010-9790-8237	
	36년생 답답했던 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형국이다. 48년생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60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조심하라. 72년생 수월한 수밖에 없는 대세이다. 84년생 상부상조 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96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23, 97	
	37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49년생 현태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61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갈등의 소지가 없앨 수 있다. 73년생 점점 더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간단하고 임하라. 85년생 흥과 북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97년생 여유를 부리고 있을 게게가 못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6, 80	
	38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패념지 말라. 50년생 너무도 비속하여 혼란에 빠질 만하다. 62년생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단계이다. 74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단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86년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98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26, 60	
	39년생 임시 불합의 형태여서는 위험하므로 절대로 아니 된다. 51년생 고요한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63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방한 것으로 자기 위안해도 된다. 75년생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겠다. 87년생 사소한 것에 얽매었다면 큰일을 놓치는 법이다. 99년생 생 거우 체면만을 유지하리라. 행운의 숫자 : 28, 83	
	40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이다. 52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64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76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리라. 88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 00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행운의 숫자 : 25, 95	
	41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53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속되었을 때 효과가 커진다. 65년생 이전과 똑 같은 상황만 되풀이될 뿐이니 일찌감치 접어 버리는 것이 더 낫다. 77년생 형체가 석연치 않다. 89년생 들고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01년생 체면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0, 56	